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2호 [루체 제25000호] 주제 104(2015)년 8월 10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축하전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녀자동아시아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에게

나는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현전쾌승을 기록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장하고 미더운 우리의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동무들은 우리 여자축구는 반드시 우승할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는 당파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불굴의 정신력과 우리 당이 제시한 공격전법으로 싸워 경이적인 체육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세계의 창공높이 램홍색공화국기를 보란듯이

조선로동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

김

전

문

여자동아시아컵  
여자축구선수들에게

휘날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치고 조국해방일흔을 조선로동당창건일흔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들이 동무들에게 나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 전체 군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시오.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

정

주제 104(2015)년 8월 8일

은

##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고결한 충정의 발현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 언제지구에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새긴 만년대계의 구조물들이 일떠섰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 어머니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백두청춘들의 고결한 충정이 낳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 솟아났다.

백두산선군청년 1호발전소는 청년증시의 역사, 청년강국의 역사를 대대손손 전하여온 백두의 칼바탕에 뜻을 달고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백두청춘들의 충정의 마음이 영원토록 빛을 뿌리게 되었다.

드넓은 언제건설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제우안의 산중턱에는 당의 구호가, 하루가 다르게 번영되는 언제하류의 우안과 좌안에는 표어들이 자발구조물로 우뚝 일떠서 있다.

의 청년증시의 역사, 청년강국의 역사로써 당의 구호와 표어들은 청년증시사장 만세! 외 표어들로 『청년증시사장 만세!』와 표어들로 『청년강국』, 『백두청춘』을 세운 만년대계의 구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 만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면서 공장개건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온 세상에 펼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으며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영예로운 사병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멀고 힘 한 걸음 헤치시며 이곳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까지 공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의 마음마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조성을 더 넓힐수록 빛을 뿌리게 되었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 만 백두의 혈통, 주체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면서 공장개건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온 세상에 펼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백두이 파시하는 백두대지의 보람찬 대건설전투장에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가장 크게 품위 있는 콩크리트구조물로 일떠세울것을 결정하고 힘있게 내밀어 주었다.

현장엔 합진휘부에서는 해당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설계도면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1호연제원들이 티없이 깨끗한 충정을 바쳐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조성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북부철길청년돌격대 활동부분에서는 해당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설계도면을 앞세운데 기초하여 1호연제원들이 티없이 깨끗한 충정을 바쳐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조성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각대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을 반드시 청년전위들의 앞길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상적각오를 암고 한시판같이 떨쳐나온 3m<sup>3</sup>에 달하는 절토와 굽작업을 멀찌사이에 불이번씩 나게 해제했다.

기세로 더욱 분발하여 불과 12일만에는 8m 이상 되는 9개의 콩크리트구조물을 험준한 산중턱에 우뚝 일떠세우고야말았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려단청년돌격대원들이 우리 당의 청년증시사상을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으며 광파방이 따로 없이 치열한 돌격전을 벌리었다.

각대 청년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을 반드시 청년전위들의 앞길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사상적각오를 암고 한시판같이 떨쳐나온 3m<sup>3</sup>에 달하는 절토와 굽작업을 멀찌사이에 불이번씩 나게 해제했다.

기세로 더욱 분발하여 불과 12일만에는 8m 이상 되는 9개의 콩크리트구조물을 험준한 산중턱에 우뚝 일떠세우고야말았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 평양시에서 1호연제원들도 새롭게 자발구조물공사를 맡았다.

그들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우뚝 일떠서면서 당의 구호와 표어들을 새롭게 자발구조물공사를 맡았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증시사상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최선에서 펼쳐나갔다.

우안구조물공사를 맡은 1대대와 좌안구조물공사를 맡은 2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은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하루에도 수십번이나 경사급한 산길로 오가며 물재와 세멘트전량을 날렸다.

기술중대 백두청춘들의 거울처럼 맑고 순결한 충정이 그대로 비끼도록 미장작업과 글자세김작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되었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청년증시사상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되었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중단없이 흐름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하고 글자세김작업을

# 항일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을 끊끗이 이어주신 그 업적 만대에 빛나라



↑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포평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57(1968)년 7월



왕재산대기념비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4(1975)년 10월



삼지연대기념비건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68(1979)년 3월



새로 개건 확장된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74(1985)년 10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3월



신홍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0(2001)년 5월



무포숙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89(2000)년 3월



고대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0(2001)년 5월



옥련산밀영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 90(2001)년 5월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홍단군을 현지지도하신 16돐이 되는 날이다.

대홍단군 인민들은 헤마다 이날이 오면 자기 고장에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굳이 나아갈 길을 활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둘이켜보려 한다.

어찌 이날뿐이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나날에 해방된 조국의 폐일을 내다보시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꾸려주실 승고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영광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벌써 반세기의 땅을 가꾸어주시기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께서 백두산 온갖 힘과 고고의 나날을 이곳 인민들은 뜨거운 마음속에 간직하고 충정과 보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7월 우리는 지난해 새로 개관된 대홍단군역사관을 수많은 관람자들과 함께 경모의 정을 암고 돌아보았다.

대홍단군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끝없는 사랑과 은정에 대해 전해들으며 우리들은 솟구쳐오르는 경쟁을 힘껏 펼쳤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던 주제 28(1939년 5월) 역사적인 무산군구전투를 조직진행 하시던 때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농민들이 부대기 를 입구에 휙휙 끌어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여기면서 앞으로 백두대지에 큰 농장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있다.

일제의 구속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살기 좋은 땅원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높은 뜻을 안으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조국이 베어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주제 37(1948년 6월) 새 조국

건설로 분양하신 속에서도 백두고원을 개발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실 수 있었다.

아버지수령님의 협명한 평도에 의하여 이듬해 봄에는 첫 농사시험장이 생겨나고 이어 백두산자치구자원조사단이 파견되어 백두대지의 농업발전을 위한 품종들과 그 재배방법, 농작물세 배경과 토양상태 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었다.

미제와의 관거리경찰사건을 벌리던 때인 조국해방전쟁시기 작전도에 적들을 격멸소탕할 공격의 화살표를 그으면서도 승리한 조국땅우에 불모의 땅을 가꾸어주시기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께서 백두산 온갖 힘과 고고의 나날을 이곳 인민들은 뜨거운 마음속에 간직하고 충정과 보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바람과 이술을 조성하고 보상당수를 농장에 일떠세울 사회주의도시와 농촌을 설계하여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히 농장창설을 발기하고 일꾼들을 대홍단군지구에 파견하여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시고 필요한 물질기술자수단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국가적조치도 취해주시었다.

파연은 어느 나라 전쟁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대홍단군에는 항일의 그 나날부터 구상해 오시고 해방직후와 전쟁의 나날에도 멈출없이 온갖 심혈과 고고를 놓아온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가능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다.

주제 4(1952년 7월) 대홍단군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때로부터 대홍단군민들은 해마다 7월 30일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안고 농장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창설을 조선화주신 7월 30일은 대홍단군에 새롭게 농장의 이름으로 수송수단들을 보내주신 수령님에 대한 생각하신 장군님.

# 한생을 영원히 백두산의 딸로 살리라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백두산혁명전적지 관리소 군중교양과장 공훈사적강사 조정숙동무

우리 당의 혁명역사를 응호하고 빛나여나가는 성스러운 초소를 지켜낸 혁명사적일군을 속에는 쳐내시침부리 근 30년 동안 백두산에 깊어는 삶의 자유를 수놓아가고 있는 백두산 혁명전적지관리소 군중교양과장 공훈사적강사 조정숙동무도 있다.

백두산의 업축한 자연환경속에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장을 지키고 빛내일 천서의 신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 길에 순결한 향심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는 백두산철제위인들을 칭송하여 부르던 시와 노래, 백두산일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혁명의 책임자, 믿음직한 보루로서의 선명이자 헌신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활동하는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또박또박 적은 영광을 지녔으니 조정숙동무의 심정은 파악 어려웠으므로.

《혁명사적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역사를 응호하고 선전하는 우리 당의 사상선전일군입니다.》

혁명의 성장을 백두산!

내 조국의 조종의 산으로 높이 솟은 백두산에는 20대의 체온과 강사 조정숙은 환경으로 영원히 있을수 없는 인생의 영광을 맞이하였다.

감격적 새로움을 주제 81(1992)년 8월 몸소 백두산에 오르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조정숙동무의 해설을 마지막까지 더 들어주시고 못내 대전에 하시며 장군봉과 황도봉을 배경으로 두번이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그는 큰마음과 환랑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그날 조정숙동무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자기 혼자나 두둔하지 않고 온갖 부어경에 휩싸여 온발 짐을 이루지 못하-

였다.

눈앞에는 김정숙사법대학을 출입하고 백두산혁명전적지관리소 강사로 배치되어 일해온 나날들이 우연히 떠올랐다.

군핵방에 혁명역사술어해설파

관련한 새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몇 차례 산나물이나 간자 및 알로 끼니를 에워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조정숙동무는 그길에서 순간의 주춤도 몰랐다.

그 나날에 학술일군들과 그는 백두산철제위인들을 칭송하여 부르던 시와 노래, 백두산일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조선혁명의 책임자, 믿음직한 보루로서의 선명이자 헌신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활동하는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조정숙동무는 이 파정에 혁명

일회집, 혁명전집을 비롯하여

3000여권의 자료들을 종합

체계화하였으며 풍부한 사적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생동하게 전개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담사하는 각계각층 당원들을 위하여 당시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훈련해 무장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펼쳐지는 당시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버쳤다. 그나마 공사장에서 쳐내 강사는 《함마처녀》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후 조정숙동무는 백두산에 들어온 청원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버쳤다. 그나마 공사장에서 쳐내 강사는 《함마처녀》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또박또박 적은 영광을 지냈으니 조정숙동무의 심정은 파악 어려웠으므로.

내 생애 영원히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것은 종이가 아닌 그의

심장에서 새겨진 인생의 좌표

였다.

이런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의

천연바위에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글자를 새기는 공사장으로

터를 주제로

나는 백두산의 딸로 살리!

그는 일당으로 짐장을 불태운

조정숙동무였기에 한계에

강의를 끝내고 다음차례의

담사자를 기다리는 짐시간이면

황도봉

## 《체제통일》은 대결광신자들의 허황한 망상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민족의 세기적 숙원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차인 파제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별되며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의연히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고 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 전 로씨야의 한 인터넷 잡지 최근호에 로씨야파 학원 동학 연구소 조선문제 전문가의 글이 실려왔다. 『평양과 서울이 보는 조선의 통일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통일에 대한 북파와 남파 서로 다른 견해와 판별, 우리 공화국이 주장하는 통일과 통령제식의 통일과 완전히 상반되는 남조선당국의 『체제통일』책동이 초래하게 되는 엄중한 후파에 대하여 적판적으로 서술하였다. 이것은 온 거예의 자주통일법원을 짓밟으면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남조선 피의들의 무분별한 망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수십년간 민족의 운명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북파나 남파 힘을 합쳐 나리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파와 남파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에 감싸여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한 차이는 반만년을 내려오며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 풍토성보다 끌수 없다. 민족적 풍토성에 토대한다면 북파와 남은 얼마든지 하나의 통일 국가안에 풀릴 수 있다. 남조선피의들이 이것을 부정하면서 외세와 약합하여 『체제통일』을 이루어보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남조선피의들의 『체제통일』망동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에 대한 온 거예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방도는 철두철미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 어느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의사와 요구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담은 통일방도만이 온 민족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북파 남에는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누구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시대비』, 『체제통일』을 실현하려 한다면 대립을 겪화시키고 민족적 단번까지 빛내게 된 것은 우리 거예의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북파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현장제 통일방안은 온 거예의 한결 같은 지지와 친동을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은 비록 외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제도에 감싸여 살고 있지만 그로

피의집권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해 많이 떠들고 있다. 피의집권자는 그 무슨 『통일시대비』, 『통일대박』이니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나오고 『통일현장』, 『통일현대』를 조작한다 어쩐다 하며 분주히 퍼포하고 있다. 그것들을 봐서 보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기초화된 제도를 본다면 『체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가 『드레즈멘선언』이라는 것을 이어월란에서 발표한 것도, 거기에 『흡수』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표기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외신들의 분석은 조금도 틀린것이 아니다.

피의집권자가 들고나온 『유라시아발기』라는 것도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의 반공화국공조로 그 누구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핵포기』와 『인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으로서 철두철미 『체제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 피의통일부 장관 유키제는 『통일을 위한 세바리온』에 대해 떠들면서 북남관계관련마비, 국제협력관련마비,

『통일』 준비관련마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비는 국제협력이라고 고하였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도는 도이월란의 통일도 미국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미국이 도와 준다면 통일은 현실로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거리낌없이 페쳐졌다. 우리 민족들은 둘로 갈리놓은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며 그에 의존하여 『체제통일』을 실현하고 날뛰는 이런 극악한 베국노들 때문에 북남대결이 격화되고 거예의 숙인자 자주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승인이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

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체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할 자주적 운명개척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적인 7. 4 공동성명과 6. 15 공동선언, 10. 4 선언은 조국통일을 위해 북파 남이 자주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남조선피의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체제통일』 실현에 빠져나 되어 날뛰는 것을 우리 민족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피의들이 추구하는 『체제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현 피의당국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점과 제제대결기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피의집권자는 『신뢰프로세스』의 기본방침은 『북의 변화』이며 종착점은 『자유민주주의제계의 원통』이라고 거리낌 없이 페쳐고 있다. 한편 역사적 평가는 주제넘게 통일이후의 『관련법』을 정비한다. 『인권』 문제대비를 위한 협의회를 한다 하면서 가소롭게 놀라운 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벤스터운 추대이다.

북침전쟁방법을 피하는 미국에 적극 충돌하여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도발에 미처처벌로써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국도로 격화시키는 혼전uang들이 이를 아울러 『도발대비』

를 해결한다는 것으로서 철두철미 『체제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 피의통일부 장관 유키제는 『통일을 위한 세바리온』에 대해 떠들면서 북남관계관련마비, 국제협력관련마비,

『통일』 준비관련마비 중에서 가장 중요

한 마비는 국제협력이라고 고하였다.

하지만 남조선피의들은 친만군민이 당

파 수령의 두려움에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불평등과 무공무친한 위력을 대하

여너무도 모르고 물들방울방울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현 피의집권세력의 무

지와 비극이 있다.

남조선피의들은 친만군민이 당

파 수령의 두려움에 일심단결된 우리 공화국의 불평등과 무공무친한 위력을 대하

여너무도 모르고 물들방울방울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현 피의집권세력의 무

지와 비극이 있다.

남조선피의들은 『체제통일』의 개품

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통일사상과로선,

그 구현인 린방제통일방안이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협상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피의당이 린방제통일을 한자로 번역

하며 『체제통일』 야망실현에 계속 미처

날뛴다면 존엄한 정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 철 순

## 도발자들의 모략나발은 통할수 없다

피의들이 그 무슨 『북의 도발』이니 뭐니 하며 도적적 메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을 부리고 있다.

며칠 전 일본 도쿄에서 미일상선들과 6 차 회담과 관련한 반공화국모의 판을 벌려놓은 피의들은 그 누구의 『도발역기』와 『비례화』에 대해 떠들며 우리를 해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구걸하였다. 그보다 앞서 피의외교부에 거리들은

『음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쌍기동을 이루는 가장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북침해시험전쟁이다. 이 연습에는 미국과 피의들이 이미 짜놓은 북침핵선제타격각본들이 적용되게 된다. 내외로 운남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피의들이 추구하는 『체제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음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쌍기동을 이루는 가장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북침해시험전쟁이다. 이 연습에는 미국과 피의들이 이미 짜놓은 북침핵선제타격각본들이 적용되게 된다. 내외로 운남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피의들이 추구하는 『체제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음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쌍기동을 이루는 가장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북침해시험전쟁이다. 이 연습에는 미국과 피의들이 이미 짜놓은 북침핵선제타격각본들이 적용되게 된다. 내외로 운남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피의들이 추구하는 『체제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음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쌍기동을 이루는 가장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북침해시험전쟁이다. 이 연습에는 미국과 피의들이 이미 짜놓은 북침핵선제타격각본들이 적용되게 된다. 내외로 운남치 않을 것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

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지난 전선전쟁도 전선전쟁도 태도를 태우고 흥미로운 것은 그에 풀어놓으면서 우리는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피의들은 이번에도 그 무슨 『연례』에 『방어훈련』이나 하며 저예의 군사적도발 60여년 동안 미국과 암합하여 새 전쟁도발작동에 발포방식으로 매립한 피의호전광물들의 범죄적성으로 폭로된 사실이다.

#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조선은 승리하였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칭찬하였다.

로씨아신문 『네제고로드스카야 블라우디』 7월 23일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사진 문화를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표제로 제3특집의 글을 올려 한면 칭찬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전쟁에서 드문 조국방위전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저들이 도발한 전쟁에서 대참배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날 클라크가 수표한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서나 다른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이 전조선을 지배하고 야당에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밑에 한 전쟁에서 대참배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날 클라크가 수표한 정전협정문은 사실상 미국의 항복서나 다른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3년간의 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미국을 조선을 지배하고 더욱 악랄하게 핵통하고 있으나 이를 단호히 짓뭉개 버리고 있다.

조선의 전승의 력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 나라 신문 『웨페란』 제28호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 여러 나라에서 신문, 인터넷에 특집

세네갈신문 『알 바이스』 7월 27일부는 조선민주군의 불멸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7월 27일,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1950년대 조선전쟁에서 인류전쟁사에 드러난 사연들이 기록되었고 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빛나는 전파자료를 소개하고 통방의 크기 않은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제를 철물러치는 신화를 창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날 이 나라 신문 『알 사우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타월한 힘도 밀에 우리 인민군 대개의 주제, 기술적 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 우세로 티아운에 칭찬하였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

령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조선은 빛을 모른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싸일로 단호히 맞서고 있다.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의 혁명전승과 더불어 조선의 7.27은 결이 빛날 것이다.

쿠웨이트신문 『알 안바』와

결의 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인민이 전후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과 밤낮을 걸친다. 것 부지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헌신을 높여주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홈페이지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전승의 7. 27은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헌신을 높여주는 김정일동지에 의해 계승되었다.

미제를 꾸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타승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원한 전승의 력사로 이어가고 계신다. 미국이 60여년전의 폐해방의 날을 암아오고 반제반제의 시대를 도달한다면 조선민주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전승의 7. 27을 영원한 승리의 7. 27으로 이어갈 것이다.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과 함께 침략희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화를 모시고

『끌없이 이어지는 전승의 력

사라는 제목의 글을, 프랑스반

제전선은 『승리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영국 선군정치 연구회는 7월 21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위대한 100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마다 7월 27일을 맞으며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전략가

이신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비범한 명군술이

있으며 수령은 군대와 인민을

군대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반제반제

전쟁으로 단호히 승리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께서

무기의 담력과 지략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

조선은 빛을 모른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싸일에는 미

싸일로 단호히 맞서고 있다.

미국과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의 혁명전승과 더불어 조선의

7.27은 결이 빛날 것이다.

쿠웨이트신문 『알 안바』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광이시다. 지난 조선전쟁은 세계전쟁사에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가

렬철한 전쟁이었다.

력량상 대비도 안되는 이 전쟁에서 영웅적 조선인민은 무비의 혁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세계『희강』을 자랑하면서 미제를 꺼꾸며 드리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신념, 전략습관과 평균술의 빛나는 승리이다.

미제를 꾸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타승하여 제2차

세계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어가고 계신다. 미국이 60여년전의 폐해방의 날을 암아오고 반제

반제의 새로운 양양의 시대를 열어놓은 승리의 7. 27을

영원한 승리의 7. 27으로 이어갈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 것이다.

조국 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었으며 조선은